

01 교회소식

선의 대반전으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마지막 때, 그러나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세계 무수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의 새해 비전.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새해를 맞아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03 기획특집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조차 선대하는 등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희생한 손양원 목사의 기도문을 통해 참된 사랑을 깨우쳐 본다.

04 간증

변화와 치유, 그리고 참된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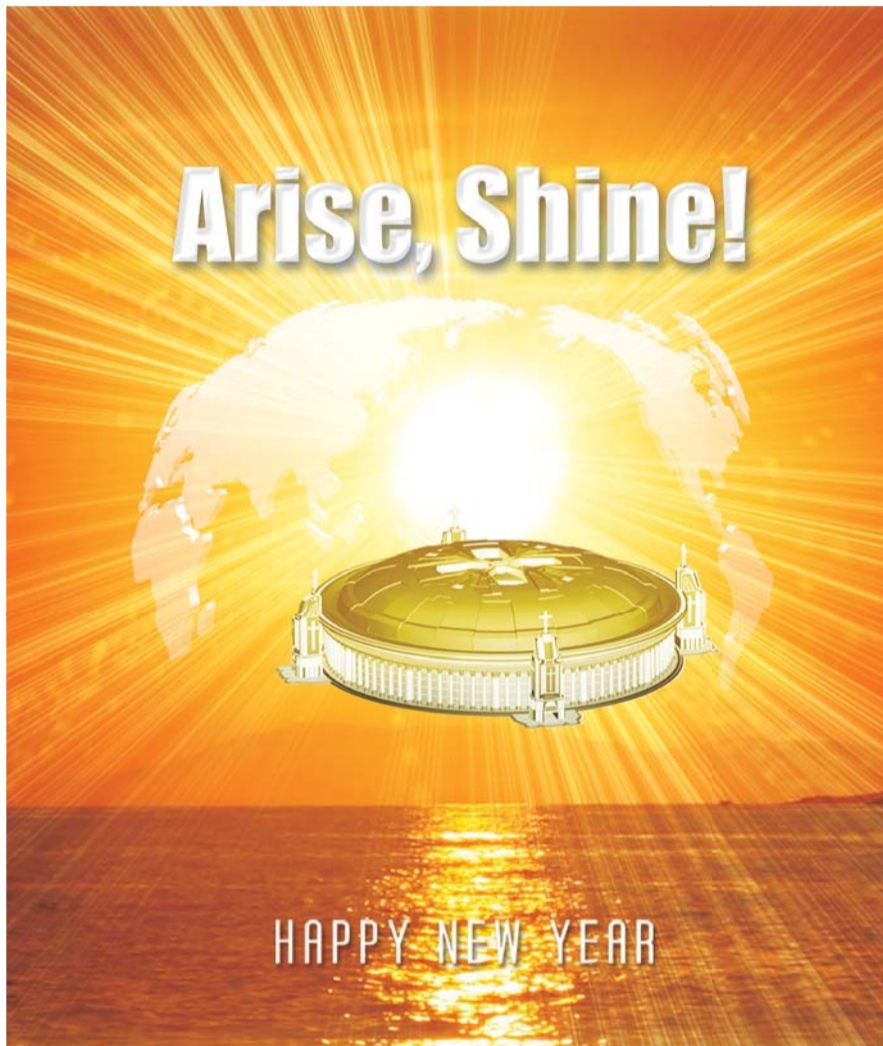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어 복음으로 새사람이 된 미국의 모세 성도와 어린 딸의 쇄골 골절을 치료받은 김해연 집사의 간증.

# 만민뉴스

제871호 2019년 1월 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2019년을 기대하며



2019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만민의 역사는 매순간이 믿음의 행군이였다. 1982년 교회 개척 이후 성장을 멈추지 않았으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영광의 순간을 맞이까지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는 곧 전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공의를 쌓으며 순교의 신앙으로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지난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연단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7) 하신 대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는 지름

길임을 확신하기에 2019년 새해, 만민의 출발은 더욱 힘찬 수밖에 없다.



2018년 12월 30일 주일 대예배 시,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는 2019년 첫 번째 기도제목인 ‘초대교회’(행 2:42-47)에 대해 전했다. 이 목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듣고 기도해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었고,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전도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라고 선포했다. 이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온전

히 이루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하며,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진리 안에 우뚝 서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만 되는 성도가 될 것”을 당부했다.

12월 31일 밤 11시에 시작된 ‘2018-2019 송구영신예배’ 1부 예배 때에는 두 번째 기도제목인 ‘영적 장수’(민 14:8-9)에 대해 설교했다. 이 목사는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적 장수가 필요하다. 영적 장수가 되려면 먼저 믿음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또한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며,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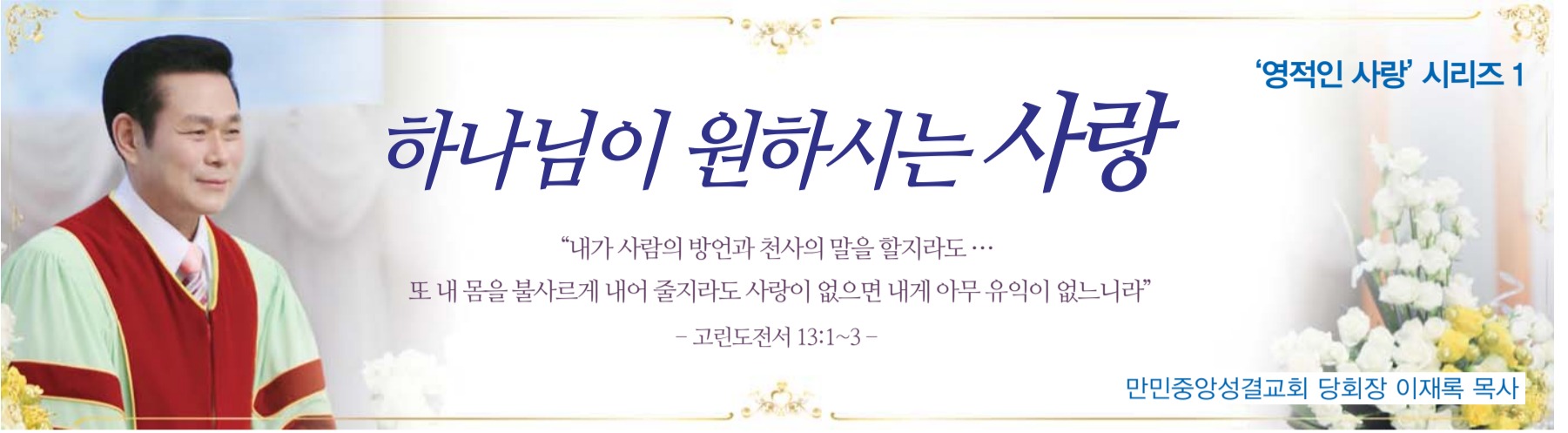
2부에는 신년 개인 기도제목 작성과 축복기도가 있었으며(사진 3), 3부에는 신년 교회 기도제목 4가지에 맞춰 준비한 예능위원회의 공연과 더불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4~8).



한편, 이수진 목사는 2019년 1월 6일과 20일 주일 대예배 시, 세 번째 기도제목인 ‘영광스런 성전’(사 60:1~3)과 네 번째 기도제목인 ‘창조의 권능’(시 62:11)에 대해서도 설교한다.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2019년에도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창대히 펼쳐질길 기대하며, 이 축복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영적인 사랑’ 시리즈 1

#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 고린도전서 13:1~3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적인 사랑과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영적인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러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야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곧 영적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생명을 살리는 실속 있는 사랑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의미하며, ‘천사의 말’이란 매우 아름다운 말을 뜻하지요. 즉 유창한 사람의 말이나 천사의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시끄러운 쟁과리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담긴 말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 8:5)라고 묻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한다면 평소 “원수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스스로 뒤집는 것과 같고, 반대로 “용서하라” 한다면 율법을 거스르는 명백한 죄가 됩니다. 이처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지요(요 8:6~9).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여인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 것이니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도나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이었지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무슨 말로 상대에게 힘이 될까? 진리로 나오게 할까?’ 기도하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생명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 상대를 설득하려 하거나 지적하여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고 거슬리는 부분을 고치려 합니다. 비록 그 말이 백 번 옳다 해도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고 참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의와 틀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은지,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를 위한 영적인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하고 아파하는 영혼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생명의 물이요, 값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 2. 자신을 희생하는 행함 있는 사랑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이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장래 일을 알고 말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차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되어 7년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7년 환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이처럼 장래 일을 알고 예언하는 능이 있다 해도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자기 유익에 따라 변질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이란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 곧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고전 1:18).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성취하기까지 비밀로 하셨습니다(고전 2:6~8). 원수 마귀 사단은 아담의 범죄로 널

겨받은 권세를 영원히 가질 줄 알고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도리어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이처럼 십자가의 도에 대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안다 해도 영적인 사랑이 없어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식’이란 학문적인 깨우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 66권에 담긴 진리의 지식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체험하여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요. 머리로만 아는 데 그치면 오히려 그 지식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는 등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사랑이 없는 지식 역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란 큰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표적과 기사 등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데, 믿음이 크다 해서 사랑이 큰 것은 아니지요. 영적인 사랑은 무엇보다 죄를 버리려는 노력과 헌신, 희생이 따를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 3. 천국에 상급이 되는 사랑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형식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자신을 의롭다 착각하여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수록 마음이 높아지니 결국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요. 반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구제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마 6:2~4).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11:00 PM
주요찬양예배 [중·고등부]	11:00 PM
주요찬양예배 [아동부]	7:00 PM
다시예배	8:00 PM
새벽예배	9:00 PM
새벽예배	4:00 PM
새벽예배	3:00 PM
다시예배	다시예배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구제는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구제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주관을 받아 상대에게 맞게 해야 하지요. 잘못된 구제는 오히려 상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사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구제하면 고넬료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 10장).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과부는 비록 두 렵돈을 예물로 드렸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의식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는 것은 완전히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은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 하며 원망하고, 심지어 열심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며 판단 정죄합니다. 이 마음의 저변에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은 충성하고 있다는

높아진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불평, 불만으로 자신도 힘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 화평을 깨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설령 드러내 놓고 불평하지 않는다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지적하면 힘이 빠지거나 지적하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지요. 또 자신보다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충성해도 참된 기쁨이 없고, 심지어 사명까지 놓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나 남들이 볼 때만 열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에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대충 시늉만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일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려 하지요.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만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믿음이 있는데 사랑 없는 희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중심에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 여기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참된 희생을 하려면 무엇보다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 희생 안에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생명이 다가가지 하나님 뜻의 이루어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올리셨지요(눅 23:34). 이런 참된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시고 천국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빌 2:9~1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삶의 희망도, 살아갈 의욕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사랑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영적인 사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참된 사랑의 본을 보여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

“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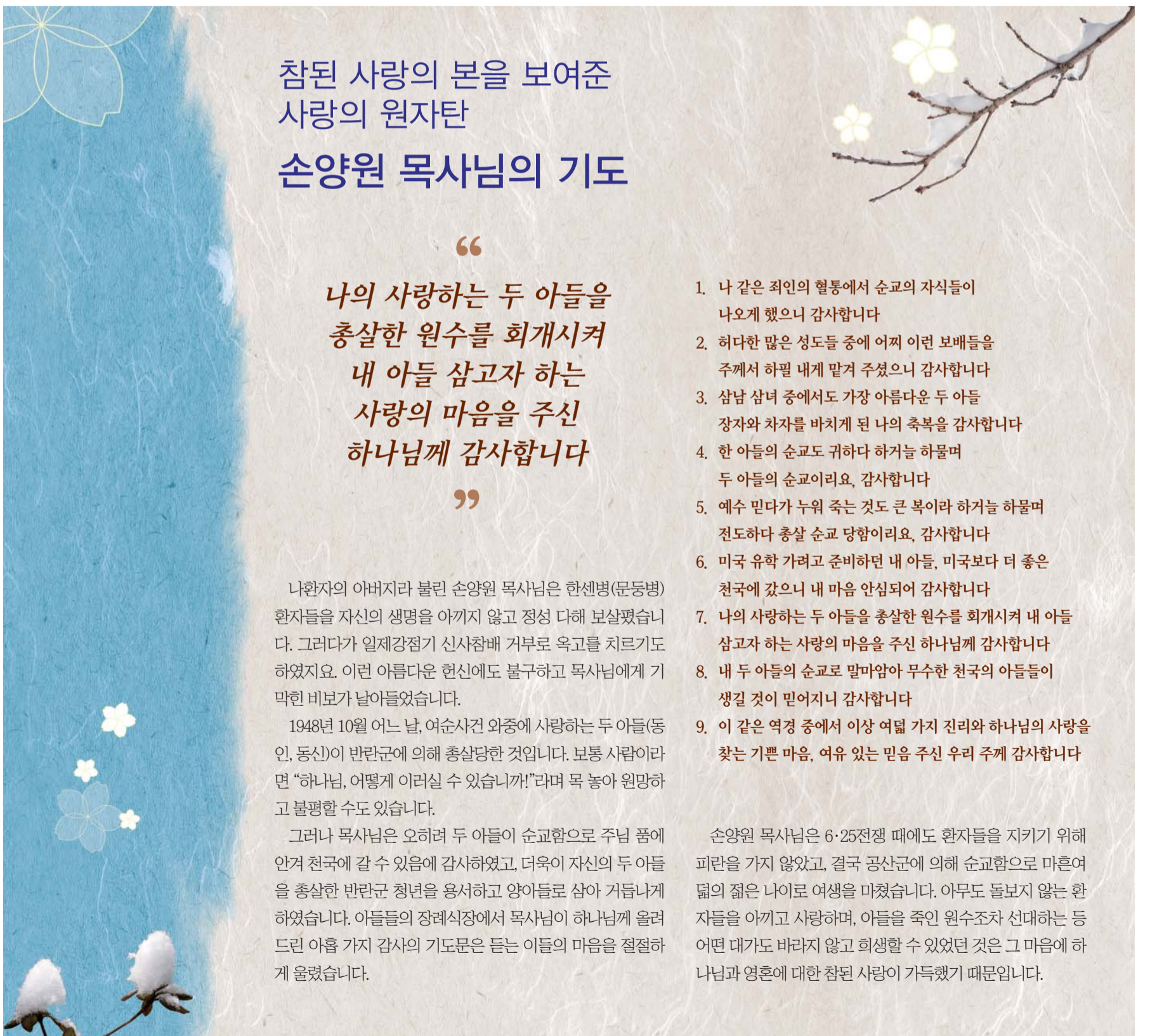
나환자의 아버지라 불린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문둥병) 환자들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성 다해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지요. 이런 아름다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기막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1948년 10월 어느 날, 여순사건 외중에 사랑하는 두 아들(동인, 동신)이 반란군에 의해 총살당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라며 목 놓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오히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더욱이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한 반란군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거둬나갔습니다.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홉 가지 감사의 기도문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울렸습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2.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5.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6.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마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9.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전쟁 때에도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피란을 가지 않았고, 결국 공산군에 의해 순교함으로 마흔여덟의 젊은 나이로 여생을 마쳤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아들을 죽인 원수조차 선대하는 등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참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김해연 집사 (32세, 진주문만민교회)

## “쇄골 골절이 손수건 기도로 치료되었어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우측 쇄골이 완전히 골절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많이 아파할 테니 내일 다시 오라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었지만, 아이는 의료진이 만지려 할 때마다 손도 못 대게 하며 울었지요.

그날 마침 구역예배가 있어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예배에 참석해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해 예배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차가 덜컥거릴 때마다 아이는 통증이 더해지는지 울다가 지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로 치료받는 체험을 해 왔기에 구역예배 장소로 이동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구역예배를 무사히 마친 뒤 사모님과 함께 구역 식구 두 분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아이에게 얹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에 간절히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아이는 서서히 울음을 멈추었는데, 집에 도착해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4층이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쇄골이 골절된 아이가 혼자서 잘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 “한결아, 한결아! 괜찮아?” 물으니 아이는 아프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저녁, 저는 교회에 가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교회 창립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는 신나게 놀았지요. 이후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쇄골이 잘 붙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돌리며, 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권능의 손수건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당회장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X-ray 촬영



▲ 기도하기 전: 우측 쇄골 몸통 부분이 골절되어 골단이 어긋나 있음.



▲ 기도받은 후: 양측 골단으로부터 골진이 나와 잘 유합되고 있음.

2018년 11월 7일, 수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새벽 5시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아이의 잠꼬대가 심했기에 침대에서 떨어진 것임을 직감하고 신속히 일으키고자 두 손으로 딸의 양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최한결, 6세)는 자지러지면서 손도 대지 못하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경, 아이의 상황을 알고자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이는 계속 아프다며 울고 있었는데



## “성결의 복음으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 아기레 파블로 성도 (36세,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스빌)

저는 유튜브를 통해 ‘믿음의 분량’, ‘사랑장’, ‘선’ 등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제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은 녹아내렸고, 신속히 마음이 깨끗해져야 함을 배우면서 저를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으니 많은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에반스빌에서 이웃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만민중앙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소식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성결을 이룰 수 있도록 구역 모임을 시작한 지 한 달 때쯤 되어서는 성도들이 각종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를 받는 간증들로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오대리아 알바라도 여성도는 유육종증(원인 불명으로 전신을 침범하는 염증성 종양)을 치료받고 원하던 영주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딸이 악한 영에서 놓임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사르 곤자레스 남성도는 척추증을 치료받고, 가브리엘라 로즈 여성도는 악한 영에게서 해방되었지요.

이처럼 저는 만민을 알게 되면서 다시 태어났고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민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중앙교회는 모든 국가와 세계에서 모범

이 되는 특별한 교회이며,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분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함을 보기에 저는 이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며 힘이 됩니다. 만민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6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248-6521
- 의정부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이천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이원8/D ☎031)905-2419, 010-2276-1014